

2016년 12월 1일, 애월읍 애월리 애월리노인회관, 문경미 조사.
양병연(남, 1928년생, 애월읍 애월리)

[제보자] ‘아기엽게 말도 들으라’ 헌 말이 잇어났주.

[조사자] 그 얘기는 들었수과?

[제보자] 김통정 장군이 기억이 섞어져그네. 게메 잘 골아질 건가. 그게 원수는 김방경인디 몽고 장수. 막 수세에 몰리니까, 그 저 원수들이 막 튀어들어 와가지고 막 수세에 몰리니 흘 수 엇이 방에 가두와네 문을 잠가가지고 들어 강 문을 딱 잠가 불었거든이.

[조사자] 성에예?

[제보자] 응. 잠가 불이니, 아 이제 적군들은 들어가 보니 문을 열지 못허니, 잡지도 못허고 허게 되니. 이제 아기엽게보고

“이제 어떻 허민 될 거니?” 물으난

“두 이레 열나흘을 불미를 걸영 흐면 철문을 올라진다.”

게니 두 이레 열나흘 불미를 걸영 노니 철문이 활짝 올라지난 김통정 장군이 돌아나면서 헛부리라고 물 나는 디가 잇어이. 거 알았지?

[조사자] 예. 장수물.

[제보자] 응. 그디 디디어가지고 “이 발자국에서 물 빨아 먹으멍 사람이랑 살라.” 헤가지고 바다레 놀아가니까 무췌방석을 7정 간 바다에는 7니까 골라앗아 불고. 또 적군은 모기가 되어가지고 앵앵 허멍 김통정 장군 놀아나는디 불어 강 야게기에 불으난 비늘 영 걷으니까 칼로 영 확허게 목을 베영 죽었다. 그런 전설.

[조사자] 그래서 아기엽게 말도 들어사 한다.

[제보자] 아기엽게 말도 들으니까니 문을 올라진 거주게.

[조사자] 그거 말고는 더 들은 거 엇수과? 기억나는 거.

[제보자] 그거 말고? 제주 도민들한테 토성을 영 돌렸는디 매일 아침 물 타그네 물 꼬리에 대비차락. 비 쓰는 대비차락을 멧 개 돌아매어그네 성 한 바퀴 확 돌민 안개가 딱 췌가지고, 이 고성도 성 두른 딜 잘 못 베려. 경 행 이제 해마다 대빛쥬록을 멧 개씩 제공허여. 경 헤났다. 것도 잇고. 또 이제 성을 돌령 보니까니 물을 내불어 된 둘러져거든. 구싯물 알지? 구싯물. 구싯물 밖에도 성을 두차 성을 두벌 돌르고. 경 헛다 하여.

- 핵심어 : 김통정, 몽고, 아기엽게, 헛부리, 토성, 말, 장수물, 구싯물, 모기, 안개, 문